

## 최태민이 세웠다는

# '영세교', 영생교와는 전혀 다르다

요즘 핫이슈인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10월 26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최순실 두 사람의 사교(邪敎·사이비종교)에 쫓겨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국내 유명일간지에서 보충하여 언급하면서, 최태민의 <영세교>를 조희성님의 <영생교>로 오인(誤認)한 기사를 썼다. 이로 인하여 <영생교 승리제단> 인터넷 포털 검색이 폭주하여 트래픽 초과로 승리제단 홈페이지가 몇 차례 열리지 않았다. 사실 영세교는 교리조차 없고, 영생은 전혀 주장하지 않았는데 영생교 승리제단으로 오인하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승리제단 홍보부에서는 오보가 있는 당일 즉각 각 신문사의 해당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인터넷에 올린 기사는 수정되었다. 이튿날 JTBC 뉴스룸에서 "영생교는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1981년에 만든 거고요, 최태민 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놋뿔과 상관없어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저물어 가는 이 마당에 하필이면 (영생교)가 뜬금없이 세간에 회자되면서, "사람은 원래 신이었고 현재의 사람이 원래의 신체로 돌아가 신이 되면 '불사'의 영생체가 된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에 되어야만 하늘나라에 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며 "본래 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살아생전에 신체를 회복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간구원론의 참진리 말씀이 마스크를 타면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쯤해서 병신년과 관련된 격양유류의 도부신인(桃符神人)편을 살펴보자.

十勝道靈出世하니 天下是非紛紛이라

승리자 하나님 정도령이 세상에 알려지니 천하가 시시비비로 여수선하다.

克己魔로 十勝變이 不俱者年亦猴로다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써 이기신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불구자(不俱者)년 즉 병신(病身)년, 다시 말해서 적후(赤猴) 즉 붉은 원숭이해(丙申年: 2016년)에 널리 알려진다.

儒佛山合 一氣再生 (중략) 楠木出聖 東西敎主 假教從民 不免差訛



구세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요 3:15)

유교, 불교, 기독교를 하나로 합치고 감람나무로 나온 성인(聖人)이 동서양의 교주시나 가짜 목자(가짜주교 또는 거짓선지자)를 따르는 백성은 그 수치를 못 면하리라.

영생이 이루어져야 종교이다. 사람이 죽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승리제단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영생하는 비결을 구세주 조희성님이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 감로이슬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조희성님의 얼굴(相好)을 바라보면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는 "모세가 놋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뿔을 쳐다본즉 살더라"라는 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감춰 놓은 구원의 방식을 구세주 조희성님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두고 '인자가 들린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예표가 놋뿔인데, 예표의 실체로서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나오자 BBC기자를 상대로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의 사실 확인 소송이 영국 법정에 제소되어 재판까지 하게 되었는데, 주심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놋뿔

의 후손들이 증인으로 나왔으며 그들이 가져온 족보책이 소명자료로서 너무나 확실하기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84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게 20세기 후반에 예수는 조작된 구세주라는 것이 영국법정에 의해서 판정받게 되자, 재판과정을 지켜본 영국의 기독교인들 중 약 80%가 회교 등 타종교로 개종을 하였으며 그 여파로 유럽일대의 교회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거꾸로 기독교가 성행하는 이유는, 진짜 구세주 조희성님을 알아보지 못하게끔 온 세상 마귀들이 한국으로 집결한 탓도 있지만 또한 선진문화의 유입을 거부하는 왜곡적인 정통과 한국인의 봉건적인 사고방식도 크게 작용한 탓도 있다.

박태선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4)

### "꾸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을 해야"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곧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영이 마귀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지배를 하는 고로 최고의 강자인 것이다.

최고의 강자인 고로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 백 번, 수 천 번 도전을 계속 하여야 한다. 도전할 때마다 백전백패를 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

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할 때 마지막에 완전히 이기는 비결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싸움을 할 때 한번에 썬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는 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꾸준히 도전을 하고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마지막에 완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 천년대계(千年大計)

무릇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먼저 계획을 튼실하게 짜야 한다. 하룻밤 사이에 바뀔 계획은 수립하게 된다. 그야말로 날림이다. 계획이 잘 되어 있어야 실패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승리제단의 미래를 짊어주어 마친가이다. 5년 뒤의 일을 내다보고 짜면 5년짜리 계획이 될 것이고, 10년 후면 10년 계획, 100년이면 100년 계획, 1000년이면 1000년 계획이 될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천 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다. 천 살이 넘어야 신(하나님)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 년 동안 살아야 이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안에 죽는다면 팔장 도루팡의 옥(獄)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것이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과연 천 년 동안 산다는 게 가능할까?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고작 120세에 불과하

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건재하고, 이슬성신을 받으면 천 년 동안 사는 것이 문제없다고 말씀하신다. 이슬성신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므로 죽을 세포를 다시 살리며,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권능의 물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슬성신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슬성신을 받으려면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구세주께서는 구원 얻을 최소한의 조건은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초초로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 없고, 하나님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주님이 초초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다시 초초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는 수도생활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구세주를 만나서 구원을 못 받는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겠다. 다시 한 번 분발하자.\*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 본부제단 10월 성적 발표

지난달에 이어 3지역 또 1등



정은경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본부제단의 2016년 10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2016년 10월의 성적은 한국 총액이 가장 많은 3지역이 지난달에 이어 지역 1등을 차지하였고 2지역이 근소한 차이로 2등, 4지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감사헌금의 순위에 의하여 이귀운 권사가 1위, 안경미 권사가 2위를 차지하였고 승리신문 회원 확보와 인도 접수의 영향으로 안명숙 승사가 개인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성적은 역시 감사헌금의 영향으로 이귀운 권사가 속한 23구역이 1등, 윤금옥 승사가 속한 58구역이 2등, 김순자 권

사가 속한 13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다. 제단 재정 현황을 봐도 그렇다. 도저히 굴러갈 수 없을 것 같아도 고비를 넘어간다.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변화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 지역 1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지역 2등: 2지역(지역장: 강중태, 지회장: 김혜선)
- 지역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23구역(구역장: 김용덕)
- 구역 2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 구역 3등: 13구역(구역장: 이교순)
- 개인 1등: 이귀운 권사
- 개인 2등: 안경미 권사
- 개인 3등: 안명숙 승사\*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승리절 2016.10.15 김갑용 승사 촬영



승리절 2016.10.15 김갑용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